3 日本の出産について (일본의 출산에 대해서)

妊娠中

定期的に病院で診察をうける妊婦健康診査(妊婦健診)は、妊娠中の回数はだいたい14回です。
日本では、妊婦健診を、妊娠初期から妊娠23週ごろまでは4週間に1回、妊娠35週ごろまでは2週間に1回、それ以降の出産までは1週間に1回うけ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妊娠初期から妊娠23週まで	4週間に1回
妊娠24週から妊娠35週まで	2週間に1回
妊娠36週から出産まで	1週間に1回

日本では、妊娠・出産には健康保険の適応がないので、病気で診察を受けるよりも費用が高いことがあります。

母子手帳に 14回分の妊婦健診の費用を補助する補助券がついていますので、役所から母子手帳をもらってください。この補助券で妊婦健診の費用が無料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が、検査によっては自己負担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もあります。また、ママの状態によっては、妊婦健診の回数が14回よりも多くなることもありますので、そのときは自己負担になります。

出産の費用は、大学病院、総合病院、個人病院、助産院など、場所によってちがいます。

日本の健康保険に入っていれば、出産育児一時金(50万円:2023年)を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임신중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임산부 건강 진단(임산부 검진)은 임신 중에 14 회 정도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임신초기에서부터 23 주까지는 4 주에 1 회, 임신 35 주까지는 2 주에 1 회, 그 이후에는 출산할 때 까지 1 주일에 1 회 임산부 검진을 받습니다.

임신 초기에서 23 주까지	4 주에 한 번
임신 24 주에서 35 주까지	2 주에 한 번
임신 36 주에서 출산까지	1 주에 한 번

일본에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찰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모자수첩에 14 회의 임산부 검진의 비용을 보조하는 보조권이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모자 수첩을 받으세요. 이 보조권으로 임산부 검진 비용이 무료가 되기도 하지만, 검사에 따라서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는 임산부 검진의 횟수가 14회보다 많아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출산 비용은 대학 병원, 종합 병원, 개인 병원, 조산원 등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출산 육아 일시금(50 만엔: 2023 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出産について

出産は、経腟分娩(下から出産すること)と帝王切開(手術での出産)に分けられます。

■ 経腟分娩(下から出産すること)

・自然分娩

・処置がある・・・促進剤を使った分娩
吸引分娩、鉗子分娩
無痛分娩

吸引分娩

鉗子分娩

無痛分娩

■ 帝王切開(手術での出産)

・予定帝王切開

・緊急帝王切開

出産の方法は医師と相談して決めますが、陣痛がはじまったあとのママと赤ちゃんの状況によっては、かわることもあります。

帝王切開は、双子や逆子などの理由で妊娠中に手術の日にちを決める予定帝王切開と、出産のときに何かがおこって緊急に手術で出産する緊急帝王切開があります。

経腟分娩を予定していても、状況によっては急に帝王切開にかわることもあります。そのときは、かならず医師から説明があります。

また、日本では、希望で帝王切開は選べません。

出産のときに、パートナーや家族、子どもが出産の部屋に入れるかどうかは、病院によってちがいます。

출산에 대해서

출산은 경질분만(질을 통한 출산)과,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출산)로 나뉘어 집니다.

■ 경질분만 (질을 통해 출산하는 경우)

・자연분만

・처리가 있음・・・ 촉진제를 사용한 분만
흡인 분만, 겸자 분만
무통 분만

흡인 분만

겸자 분만

무통 분만

■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출산)

・예정 제왕절개

・긴급 제왕절개

출산 방법은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지만, 진통이 시작되고 나서 산모와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쌍둥이나 역아 등과 같은 이유로 임신 중에 수술 날짜를 정하는 예정 제왕절개와, 출산중 문제가 생겨 긴급하게 수술로 출산을 해야 하는 긴급 제왕절개가 있습니다.

경질분만을 예정하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갑자기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설명이 있습니다.

일본에선 희망에 따라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출산시 출산 방에 파트너, 가족, 아이가 출입할 수 있는지는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